

# “회원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업계 발전에 혼신의 힘 쏟을 터”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이연풍** 회장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갈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이연풍 광주·전남도회 회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

먼저 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광주·전남 설비건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설비건설업계에 몸담은 지 만 2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어려움에 수없이 많이 부딪쳤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협회 운영위원, 부회장, 본회 이사직을 역임하면서 회원사들이 원하는 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향후 임기 3년 동안 본회와 각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갖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우리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으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중점 추진 사업

### 첫째, 하도급환경 개선 및 분리발주 활성화 등 업역확대에 주력

광주·전남도회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은 물론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련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청 및 산하 발주기관 등 관내 발주기관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분리발주의 당위성 및 효율성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성실시공을 통한 시공품질 확보 등을 통해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둘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에 적극 동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시공과정과 준공 후 사후관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가능케 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새로운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광주·전남도회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전 회원사의 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며, 광주·전남지역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회원사 경쟁력 강화 추진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이 내년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업역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이 가능해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전남도회는 업역 개방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입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저가 및 불공정 하도급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특히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직할시공제, 분리발주 확대 등 기계설비공사업의 원도급화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도급을 주로 하는 우리 회원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광주·전남도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주되는 모든 기계설비 공사가 원도급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넷째, 협회와 회원사의 위상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외홍보 강화 추진

22년의 대한설비건설협회 역사와 1조4천5백억원의 2010년 광주·전남도회 기성실적에도 불구하고 회원사와 협회 위상이 이에 상응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으며, 협회의 대회원사 서비스도 미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전남도회는 회원사가 특히 법률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7월 광주·전남도회의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 노무·법무사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차후 회계사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광주·전남도회의 대회원사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도회는 이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대외 홍보 강화에 집중하는 등 광주·전남도회가 협회 역사와 기성실적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째, 지역내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회원사간 친목강화 추진

회원사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인 동시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도회 관할 지역은 지리적으로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시간·거리 상의 문제 및 주력 업역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 활발히 교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주·전남도회는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와 현안 논의 등 회원사간 친목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 여섯째, 회원사 업무능력 향상 기여

기계설비업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종이 아니라 공사 수주에 의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체로서, 우리 회원사는 매년 신규 공사를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수익 창출 불안정 △각 업무별 전담인원 고용·유지 불안정 등에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최소 직원이 다수 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자칫하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큼니다. 따라서 광주·전남도회는 건설업 관련 각종 신고·보고 등의 의무사항 및 불법하도급 관련 위반 등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교육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실무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회원사의 실무담당 직원들의 제반업무 습득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

주·전남도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사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유럽발 제2글로벌 금융악재와 건설·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 물가상승, 최저가 낙찰제 확대 예정, 원도급자의 과당경쟁 유도로 인한 저가수주 등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저가수주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수주방지는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개척했던 초창기의 환경을 생각하며 업역의 폭을 넓혀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환경 등 신산업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협회, 그리고 회원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란 말도 있듯이,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업역확보 및 권익향상을 위한 협회 추진사업에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한다면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새로이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동반자로서 회원사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업계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광주·전남도회 이연풍 회장은

- 1953년생(59세)
-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수료
- (주)삼승문화 전남매일신문사 대표이사

- 2~5대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운영위원
- 제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 광주 무진로타리클럽 회장
- 제8대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회 회장(現)
- 광주 살레시오 중·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現)
-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이사(現)